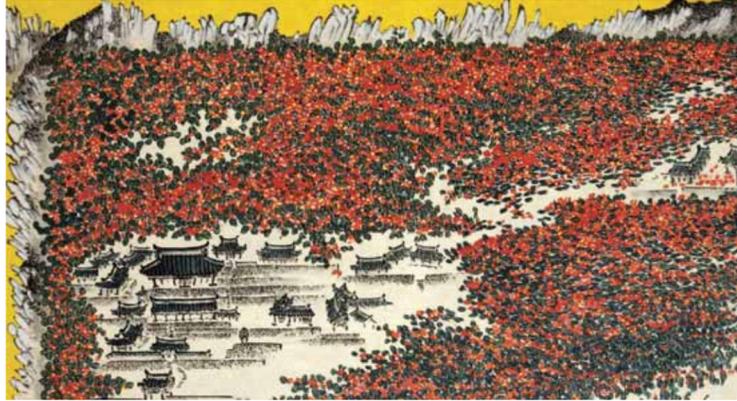


“절에 생긴 현대미술관 구경오세요”

해남 미항사 전각 '자하루 미술관' 개관

‘풍류남도 만화방창’ 등 꾸준한 전시
방문객들 반응 좋아 미술관 문 열어
“종교적 색채 탈피 현대미술 위주 운영”

26일~5월 31일 개관전 화가 32명 참여



신태수 작 '달마산 미항사'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 자락에 위치한 미항사는 명골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인상적인 사찰이다. 약 1200년 전 창건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법정스님이 생전 “홀로 감춰두고 싶은 절”이라고 할 만큼 소박한 아름다움이 깃든 곳이다.

매년 10월에는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괘불탱을 산 사음악회와 함께 공개하는 등 천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과 문화적 소통으로 인해 불교 신자뿐 아니라 타 종교인, 국내외 방문객 등 해마다 10만명 이상이 들고 있다. 특히 화가들은 물론 시인, 음악인 등 예술인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며 창작 산실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는 26일 미항사 입구에 위치한 전각 자하루(紫霞樓)가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자하루 미술관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 보다는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는 현대미술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하루 2층에 80평 규모로 자리잡은 미술관은 지난해 7월 행촌문화재단이 진행한 ‘풍류남도 만화방창’전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행촌문화재단은 미항사를 비롯해 대흥사 성보박물관, 백련사, 일지암, 고산운선도유물전시관(녹우당) 등 총 8곳 13개 공간에서 예술가 41명의

작품 420점을 전시했다. 청소년 대상 한문학당 등으로 쓰이던 자하루는 전통미를 간직한 외관에 녹아든 현대미술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종구, 미항사 절집기행’ 등 꾸준히 시범전시를 개최하며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봤다.

오는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를 주제로 열리는 개관전에서는 미항사와 관련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해 ‘풍류남도 만화방창’에 참여한 윤석남, 서용선, 이종구, 김전일, 김선두, 조병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32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미항사를 방문해 창건 신화나 현재 모습, 풍경 등을 소재로 작업을 했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미항사는 749년에 세워졌다. 인도에서 쇠로 된 사람이 불상, 경전, 검은돌 등을 돌로 만든 배에 싣고 고 불교를 전파하려 했다. 검은돌에서 검은 소가 나왔고 소는 경전을 싣고 가다 크게 울며 땅에 두번 누웠다고 한다. 이를 본 의조화상은 소가 첫번째 누운 곳에는 통고사, 두번째로 누운 곳에는 미항사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소 울음소리가 지극히 아름다워 ‘미(美)자’와 쇠로 된 사람을 상징한 ‘황(黃)자’를 써 이름을 지었다.

작가들은 출품한 신작 60여점은 한국화, 서양화,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장르가 눈길을 끈다.

목판화가 홍선웅은 창건설화를 판화로 표현했다. 작품 ‘미항사 창건설화’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불상이 실어진 배, 경전을 싣고 소달구지를 모는 의조화상이 등장한다. 창건설화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동화를 읽는 듯한 소소한 재미를 준다.

박방영 작가가 그린 회화 작품 ‘미항사’도 창건설화가 모티브다. 상징과 함축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흥 작가 작품과 달리 미항사와 관련한 소재들로 화폭을 가득 채웠다. 달마산 아래 그린 괘불탱, 불상, 탑, 동자승, 매화나무 등 100여 가지 소재를 통해 미항사 과거와 현재 모습을 동시에 표현했다.

신태수 작가는 미항사 풍경에 매혹됐다. 작품 ‘달마산 미항사’는 캔버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백숲에 둘러싸인 미항사를 흑백으로 표현했다. 화려함과 담백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미국 밀워키시립미술관에 초대된 주지 금강스님의 탁본작품도 함께 출품된다.

협력큐레이터로 참여하는 이승미 행촌미술관장은 “자하루 갤러리는 종교적 색채를 벗어나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미술관으로서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10-3052-58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는 26일 미술관 개관을 앞둔 해남 미항사 누각 자하루(紫霞樓) 외부(왼쪽)와 내부 모습. 미술관은 자하루 2층에 80평 규모로 조성되며 5월31일까지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를 주제로 개관전이 열린다.

광주박물관 ‘고깔-고대의 모자’ 테마전

6월26일까지...신창동 유적지 출토 10점 전시

국립광주박물관이 6월26일까지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모자의 상징성과 의미를 조명하는 테마전 ‘고깔-고대의 모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고깔’ 10점은 1995년, 2009년 발굴 조사 때 출토됐다. 발굴 당시 드러난 부채살 모양 목기는 용도 자체가 불분명했으나 지난 2012년 ‘고깔’모자로 복원됐다.

고깔은 길이 약 25cm 이등변삼각형 형태 얇은 빛나무가 재료다. 하부지름 22cm, 높이 23cm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다.

중국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풍속이 옷입기를 좋아하며, 일반백성들도 군에 갈 때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었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의책은 의상과 모자를 의미한다. 또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둥이는 고깔을 쓰고 비단옷을 입는다”라고 기록돼있다.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고깔은 삼국지와 후한서 등에 나온 내용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서 고대 모자와 복식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다.



신창동 유적 ‘고깔’

또 이번 테마전에는 신창동 고깔 외에도 경북 상언리 유적에서 출토된 고깔 조각과 조선시대의 갈모도 함께 전시한다. 삼국시대 사람들이 착용한 모자 형태와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자료도 함께 배치된다. 문의 062-570-70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옥란 작가 ‘아트바젤 홍콩’ 참가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트랜스 휴먼’ 15점 출품



‘트랜스 휴먼’

기옥란 작가가 24일부터 시작하는 아트바젤 홍콩에 참가한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아트바젤 홍콩은 35개국 239개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다. 26일까지 3일 동안 홍콩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다.

기옥란 작가는 이번 행사에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 평화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트랜스휴먼(Trans-human)’ 연작 15점을 출품한다.

기옥란 작가는 “외국에서 선보이는 만큼 지역 미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명, 교감 그리고 나눔’에 관한 작품을 작업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옥란 작가는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미술교 육과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조선대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 15회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대통령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고 현재 이현희·예보교회·광주전남여성작가회·한국신미술협회 회원, 한국미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기옥란 작가는 갤러리5(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속으로 이번 홍콩아트페어에 이상필, 송필용, 이재일, 고영종 등 4명과 함께 참여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익어나 함께가자!

부활·순결·평화

2016년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2016년 3월 27일(주일) 오후 3시

장소 광주시청 문화광장 (상무지구)

- 주 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 주 관 : 2016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 후 원 :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광역시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장로교협의회,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 광주CBS, 광주CTS, 광주극동방송, 미션21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타임스